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안녕하세요
고란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시간동안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올해 제가 업로드했던 칼럼을 모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싶은것들을
계속 칼럼으로 올렸기에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수능장에서 국어를 마주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하여
평가원 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란니 성적 (원점수 기준)

2021 6 100
2021 9 100
2021 수능 95 - 문법2개틀림
2022 3 100(화작)
2022 4 100(화작)
2022 6 100(화작)
2022 7 97(언매) - 문법1개틀림
2022 9 100(언매)
2022 10 98(언매) - 문법1개틀림

문학 읽는 법

선지판단은 각자 배우시는 선생님들의 방법을 따라가시되,
다 통용될수 있는방법은 이미 지난칼럼에서 설명드렸다 생각하여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 현대시

실전에서 읽는 방법이라
기출을 통해 공부할때와는 **조금 다른태도로 접근합니다**

매우 간단하게요

보통 기출공부할때는
긍정 (+)/ 부정 (-) 으로 통치지 않고

해석을 자세하게,
시어들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디테일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시간부족으로 망해요.**
"할 수 있는건 다 챙겨가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보기> 확인

시의 해석에 대한 방향을 <보기>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 가 있다면 읽고 넘어갑시다.
(대신, 시의 내용에 관련된 보기가 아니라면x)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2. 제목확인

보통 제목에 시의 ‘대상’ 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에 나온 ‘대상’ 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의 의미가 파악 안 되고, 모르겠으면 가볍게 패스)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 박목월, 「나무」 -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 김현승, 「플라타너스」 -

3. 읽자

①정서에 집중

정서는 시어로 직접 제시해줄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
직접적으로 정서를 제시해주지 않을때는
시적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풍경묘사가 어떤지,
보조사와 부사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있으면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ㅎㅎ

물론, 틀리는경우도 있겠지만
읽을때 느껴지는 "감" 과 실제 시의 정서와
간극을 좁히는것이 기출분석이니
이런경우는 국어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①-2

- 시적대상
- 시공간의 변화유무 **체크**
- 정서변화의 유무

정서에 집중하여 읽읍시다.
시적대상이 무엇이고, 시공간의 변화가있는지, 정서변화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 정서는 시의 분위기이고, 어조와도 연관되어있습니다.
정서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도
정서를 잡으면 <보기> 를 통해 도움받거나
선지소거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①-3

반복되는 시어, 시구 ⇒ 시의 주제 형성

반복되는 시어, 시구가 있다면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①-4

유사한 통사구조

정서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유사한 통사구조는 같은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있어요.

A ~ B

A' ~ B' 에서

A' ~ B' 부분이 애매하게 다가올때

A ~ B를 이해했으면 가볍게 넘어가도 좋아요.

예시로는 신경림의 《농무》가 있겠네요.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각주, 어구풀이 있으면 확인

이유없이 주지 않아요

내가 알고있는 뜻과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고 갑시다.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 특수한 표현법은 눈에 보일 때 체크

특수한 표현법 (반어, 색채어 등...) 은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체크하는게 편해요

→ 이때 표현법 찾는다고 과하게 확인 하지는 마세요

보일때 표시하세요.

지금확인못해도 문제에서 물어볼때 돌아와서 확인 해주면 충분하니까요

더 중요한건 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표시한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트색은 실제로 표시하는것,
빨간색은 머리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②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③ 상황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④ 반어 ⑤

⑥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A]

[B]

[C]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아라비아
사막
특징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시작대상 앉아 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 영역을 더 크게 선택하세요. 있을까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튼튼한 줄기를 얻고
 앞은 흔들려서 스스로 ⊕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화자가 말하는
 흔들림이 무엇일까
 고안할 필요 x

→ 화자가 흔들림을
 ⊕로 인식한다는걸
 알기만 하면 됨.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앞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

피하지 마라

㉔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oplus 안지 아닌지 애매함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ominus 까마귀 \oplus 장황수 \circ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떤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ominus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혜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

시적대상전환
인지

⊕

정서전환
인지

[원주(原註)]사소: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진 사잇길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각,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각지, 콩각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받은치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B]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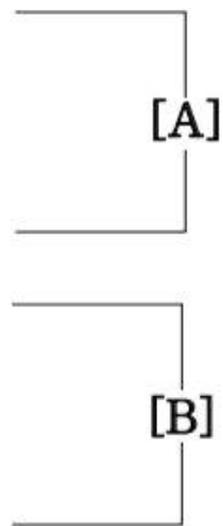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루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루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루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루를 앞에 두고
 그루, 그루 중얼거리려 보면

그루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루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루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루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루」 -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쪽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A]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B]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C]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D]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E]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닳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낚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웁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앓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2. 현대소설

*전제

배경지식으로만 읽지 마라
전체 작품 중 일부를 잘라서 내기 때문에
내가 알고있는 지식과 충돌 할 수도 있다

1. <보기> 먼저

인물간의 관계나, 전반적인 줄거리, 그 작품의 특징을 <보기>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 가 있다면 읽고 넘어갑시다.

(대신, 소설 내용에 관련된 보기가 아니라면x)

—<보 기>—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 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보 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2. 읽자

2- ① 앞부분의 줄거리 / 중간 줄거리

인물사이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먼저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 부분을 통해 힌트를 잡고 갑시다. (저는 이부분을 읽을때 예열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문에서 제시해준다면 좋아합니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충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2- ② 인물 중심으로 읽기

소설은 주제/구성/문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제는 <보기>와 작품을 통해서 던져줍니다.
문체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잘 물어보구요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실제로 마주하는건
"구성" 입니다.

중학생때부터 달달 외운
인물/사건/배경 말이에요

사실 이 틀을 통해
우리가 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야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소설 구성의 3요소 : 인물 / 사건 / 배경

(1) 인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읽읍시다.
갈등은 인물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니깐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표시해주세요
: 관계/심리, 태도, 반응

여기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특성에 따라
어디에 집중해야할지 조금 달라집니다.
(사실은 비슷한데 글로 표현하면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1인칭 시점

: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됩니다
갈등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집중하며 '나'를 따라가면 됩니다.
⇒ 서술자의 심리 따라가주세요. 특히 인식변화가 나온다면 중요합니다.

-3인칭 시점

: 1인칭 시점보다는 좀더 갈등상황이 잘 부각됩니다.
전지적 시점인 경우 초점화자가 나오는 작품을 제외하면
많은 인물의 심리가 서술되니 한사람을 따라가기보다
갈등상황에서 각 인물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1] 초점화자 있는 경우

: 1인칭 시점처럼 읽어주세요

[2] 초점화자 없는 경우

: 갈등상황에 대한 각 인물의 심리를(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파악하며 읽어주세요
갈등상황은 뭔지, 누가 누구와 대립하는지 등 파악합니다

(2) 배경이 바뀌면 끊어서

시간/공간이 바뀌면 끊어주세요
나중에 문제풀때 돌아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해두는것도 좋습니다.

2-③ 각주, 어구풀이 있으면 확인

이유없이 주지 않아요
내가 알고있는 뜻과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고 갑시다.

* 노보세했네 : 일부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 사음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2-④ 세부정보에 집착X

운문에 비해 산문은 정보량이 많습니다.
인물들의 흐름과 갈등을 파악하면서 읽은 후
나중에 문제에서 세부내용을 물어보면
찾아와서 읽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기억하려고 하거나,
선지 판별할때 기억에만 의존해서 푸는건 위험합니다.

2-⑤ 특수한 기법은 눈에 보일 때 체크

특수한 기법 (과거회상, 초점화자, 병렬적 구성 등..) 은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체크하는게 편해요
(이걸 기법이라 하나요..?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ㅠ)

→ 이때 찾는다고 과하게 확인 하지는 마세요
보일때 표시하세요.

지금 확인 못해도 문제에서 물어볼때 돌아와서 확인 해주면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체크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읽는 방법을 담았으니
민트색은 실제로 표시하는 부분,
빨간색은 머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12 [22~25]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도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뻗 전쟁 뉘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백이 팔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 아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쾌덕스럽기까지 했다. ㉢ 여기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 갔던, 아틀리에도 ㉣ 제외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과거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과거 나는 D고지에서 전부 중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류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부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알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원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셋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쪼그라든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뿔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 까지도 ㉩ 크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손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밧방울 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힐끔질렸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다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가 아무것도 신기한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글 율윽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둘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

⇒ 생동감 ㉥

[A] "나.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물벌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 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바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과라솔·계략·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B]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었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9 [16~19]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짜그리지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숯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관서 집 **사슴**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먼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거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었다.

그러던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복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독특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얹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옆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옆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화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람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흰선단 주철저수두이**아저씨 **회준이** 이렇게 **흰선**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전생**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견 댕바람에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채찍한** 놈 말하는 것 좀 보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랴!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명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회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돌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지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대를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때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견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께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겠지……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던단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꼴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털어 내던진다.

“웬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내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잠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 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 이기영, 「고향」 -

* 사슴: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예시 [26~29]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태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옳,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지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과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이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살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립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관에 붉은 형질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며,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며
 [A]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고,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B]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결연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이성을 생각하여 보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걸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맛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롭고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2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1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06 [34~37]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그기 뭘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야 썩 물리라고 토끼야 착 었디라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밟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추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영계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꺼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꺼다. 너는 인자 죽었다. 자숙아”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짓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걸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쥐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 마음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나?”

“떡두께(떡두꺼비) 걸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때때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너는 깨었다.”

“니 기다리다가 아가 해 뜰 녀에 달이 올길래 밤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걸은 놈의 자숙아, 와 밤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냐!”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 우물로 달려갔다.

[A]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B]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4. ㉠, ㉡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③ ㉠과 ㉡을 삭제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 ④ ㉠과 ㉡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⑤ ㉠과 ㉡을 통해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전시가

* 미리 챙겨가야 할 것

① 단어

고전시가는 현대시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해석에서 막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전시가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빈출단어를 눈에 익혀 두는것이 중요해요.

영어단어처럼 고전시가 어휘도 암기 해주세요.
단어장처럼 외워도 되고,
고전시가 필수작품 공부하면서 해석이랑 대조하면서 익혀도 좋아요.

저는 훈련도감 내에 수록 되어있는 어휘 자료를
복사해서 노트에 정리해서 수시로 봤어요.
필수작품은 홀수 출판사에서 나온 '고전을 면하다' 로 읽었구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김쌤마T 자료실에 올라와있는 고전시가 어휘 파일이나
유현주T 단어장 활용하시면 좋을듯 해요.

제가 다른 강사들 교재는 못봐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문학 커리에서 어휘를 정리해줄것같은데
만약 본인의 책에 빈출어휘가 정리되어있다 하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다른 교재 구매 할 필요 없어요:)

② 고전시가의 뻘한 주제 & 뻘한 표현.

고전시가는 좀 뻘해요.
나라걱정, 임금생각, 자연좋아, 속세극혐
이런 주제가 잘 반복되거든요

이 틀이 머릿속에 있다면 쉽게 읽어갈수 있어요.
이 틀은 기출을 통해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올때 어떤 주제를 담고있는지 정리해보세요:)

반복되는 뻘한표현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1의 어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천석고향 → 자연좋아!
박주산채 → 소박한 삶 -> 자연좋아!
삿갓&도롱이 → 가짜어부 → 자연좋아!
홍진 -> 속세극혐 -> 자연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에서 반복됩니다.

다만, 관념적 가난홍내가 아니라
진짜 가난을 노래하는 작품도 있으니
이는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설시조, 고려가요, 향가 - 덴동어미화전가 / 구지가/ 동동 등
이런건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
주로 선비들이 지은 시조나 가사가 많이 나오니 저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 틀에 맞는 시가 나오면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요)

주로 나오는 표현 몇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소박한 삶》

의 : 삿갓, 도롱이, 베옷 ...
식 : 보리밥, 산나물, 박주산채, 단사포음 ...
주 : 초간모옥, 초옥, 모옥 ...

《속세와 관련된 표현》

인세, 홍진, 풍진, 십장홍진, 장안, 삼공, 만승 ...

《자연과 관련된 표현》

청풍명월, 연하, 풍월, 산림,
미음완보/소요음영(자연속에서 유유자적),
소부허유(주로 화자의 물모델) ...

* 실전

해석만 된다면 현대시와 비슷해요.

1. <보기> 먼저

시의 해석에 대한 방향을 <보기>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가 있다면 읽고 넘어갑시다.
(대신, 시의 내용에 관련된 보기가 아니라면x)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지난 칼럼에 달린 질문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Q. 〈보기〉 먼저 볼때 가볍게 보는게 힘들어요

A. 가볍게 안보고 정독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보기〉를 통해 읽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
본인이 편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Q. 〈보기〉 -> 작품 후에 문제를 풀때 〈보기〉의 내용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더 읽어야 해요ㅠㅠ 비효율적이죠??**

A. 문제풀때 〈보기〉를 다시 읽는 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두 경우 〈보기〉를 읽는 목적이 좀 달라요.

작품 읽기 전 〈보기〉를 보는 이유는
작품의 감상 방향을 잡고,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함이고,

문제 풀기 전 〈보기〉를 보는 이유는 정확한 선지판단을 하기 위함이니
부담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달되면 알아서 시간이 줄어들어요

2. 읽자.

① 제목

고전시가는 사실 제목을 봐도 큰 힌트를 잡기 어려워서
저는 그냥 속 보고 들어갑니다.

②-1 해석기본 태도

* 작품 감상할때 태도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쫓지말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하겠어요?

화자의 감정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점에서는 현대시보다 더 쉬워요
긍정/부정의 표현이 더 뚜렷하거든요

단어 몇개를 모르더라도
보통 감정이 드러나는 서술어 부분은 쉽게 해석할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석이 막힌다면 이부분을 짚고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감정만 파악하고 마구 넘기란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어떤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도 같이 파악해주셔야 해요

*시적대상이 현대시에 비해 좀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풀때, 팩트체크에 더 주의하셔야합니다:)

* 자연은 무조건 (+)라 봐도 무방합니다.
속세는 작품마다 달라요
(-)의 공간 일수도 있고, (+)의 공간 일수도 있어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우국충심, 연군지정의 정서가 나올수도 있으니
항상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②-2 해석방법

사실 어휘를 알아도 적용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ㅠ ㅠ

그래서 몇까지 해석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수 문법 베이스 or 언매 선택자는 다 아실거예요.

- 구개음화/두음법칙 적용
- 어두자음군은 된소리로
- 아래아 : 첫음절 - 아 / 두번째 음절부터 - 으
- 순경음 ㅂ (ㅂㅇ 같이있는거) → ㅓ / ㅓ
- 2인칭주어 - 니 다 ⇒의문 표현임
- 설의 → 강조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

ex)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 그리던 님보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

***제일 중요한건 속으로 따라읽어보기!!**

②-3 유사한 통사구조

정서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유사한 통사구조는 같은(유사한) 메시지를 담고있어요.

A ~ B
A' ~ B' 에서 A' ~ B' 부분이 애매하게 다가올때
A ~ B를 이해했으면 가볍게 넘어가도 좋아요.

예시로는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겠네요.

부용(芙蓉)을 고장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②-4 시 • 공간변화 체크

현대시보다 시 • 공간변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에서 물어보기 좋아요
공간이 바뀐다면 체크해주세요:)

③ 각주, 어구풀이 있으면 확인

사실 고전시가 나오면 다들 확인할꺼라 100% 생각하지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ㅎㅎ

해석 막히는 부분쯤에 제시해주는 경우 많아서 꼭! 확인해주세요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즐기에서 번어 나간 곁가지.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절봉.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견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책을 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세상에 나아감.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태부 결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 벽파: 푸른 물결.
- * 소쇄흙: 기운이 맑고 깨끗함.

④ 특수한 표현법은 눈에 보일 때 체크

특수한 표현법 (영탄, 색채어 등...) 은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체크하는게 편해요

→ 이때 표현법 찾는다고 과하게 확인 하지는 마세요
보일때 표시하세요.

지금 확인 못해도 문제에서 물어볼때 돌아와서 확인 해주면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체크한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읽는 방법을 담았으니
민트색은 실제로 표시하는 부분,
빨간색은 머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기출 공부하는것보다 훨씬 대충읽고 넘어가니
영성해보일 수 있어요 이점 유의해주세요

▶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 정사**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뚫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타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도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뉘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녀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있는가 **명탄**

[A]

개심대 고타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러 이셔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느냐
 음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애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배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타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늪들은 운는다 훈다마는

㉠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푹눅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긱 믄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되 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뉘 하 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 뚝 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흔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 군 은 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잡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애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는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디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괴 비는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0정서(그리움)**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쎄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괴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프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회룡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睡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일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
 인생 천지간에 ㉠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퇴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더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퇴 늙고 병든 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낫삽다가 ㉡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
 아롱보(襍)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며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퇴 [E]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김인검, 「일동장유가」 -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차아: 줄기에서 번어 나간 걸가지.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피봉: 겹봉.

(가)

지향 바 이루지 X

문장(文章)을 ⁷ 호자 호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 오
공맹(孔孟)을 비호려 호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
이로다

이 내 몸 쓸 더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 호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 호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등의 무한지락(無限至樂)을 현스홀가 두려웨라

<제3장>

인간(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 말가 나는 알기 즐서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호노라 → 안본지족

<제6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홀 손 아마도 풍진(風塵) 분우(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홀 손 아마도 강호(江湖) 구로(鷗鷺)
①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을 췌드론가 호노라

<제8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홀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
(乞骸歸)*홀 제

호연(浩然) 행색(行色)을 뉘 아니 부러호리 → 설의 ㄹ 무렵디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호니 나도 몰나 호노라

<제9장>

나 갈등

인간(人間)의 풍우(風雨) 다(多)호니 므스 일 머므노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호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호니 일흥(逸興) 계워 호노라

<제11장>

- 안서우, 「유원십이곡」 -

- * 인생식자 우환시: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됨.
- * 도약등천 불가급: 도는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 * 성대농포: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음.
- * 작비금시: 어제는 그르고 지금은 옳음.
- * 도팽택 기관거: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 * 태부 걸해귀: 한나라 태부 소광이 사직을 간청함.
- * 부지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가)

㉠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 혼고

넋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뭇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 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튀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뭇 아 넌가 붓으로 그려 넌가

造化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 정서이여 진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홍이 의 다 를 소 나

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 흐야 산일(山日)이 적적 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 로다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 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흐고 욕기(浴沂)란 내일 흐새

아침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뱃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 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 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 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몰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흐야 ㉥ 시닛 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 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로다

무릉이 갓 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막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늪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

아 자연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①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ππ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πππ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풍류!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 ②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솥에 물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A]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顏)*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죽음}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
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무상감**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 목적: 목동의 피리.

(가)

지향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고저 호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호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호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호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호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호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노라 <제4수>

출(出)호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호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오리라

↳ <보기> 연결 ⇒ 자연선택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호니 버리면 구태 구호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호니 오라 말라 호느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훈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나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보기> 연결 ⇒ 자연선택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견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

실전에서 글이 튕길 때

생각난대로 막 적은거라
두서없을수도 있고
거칠수도 있음

내가 어떤태도로 푸는지 적은거긴한데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르셈

1. 완벽하게 읽으려는 태도는 독일수도 있다

솔직히 누구나 긴장하면 글이 잘 안읽힘
수능장에서 지문의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 수 있음

완벽한 이해에 집착하다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뇌피셜 넣어서 읽다가 꼬일수도 있고
아예 글이 튕겨서 뇌질 올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이해에 집착하지마셈

2. 뇌질을때 문장 처리

박광일이 독한것, 미문보에서 가르쳐줬던건데
다른 강사들도 다뤄준건지는 모르겠음

특별한건 아니고
문장이 머릿속으로 안들어 올때면

다른거 다 제거하고
주술구조 뼈대만 남겨서 1차로 먼저 큰 의미부터 파악하고
그후에 수식어구랑 같이 2차로 한번 더 읽기

*1차로 읽을때 얼마나 남겨서 읽을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알아서 읽으면됨

예를 들어서

폴리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문장이 튕긴다 싶으면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1차로 굵은 글씨 먼저 파악하고

2차로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1차에서 날렸던 수식부분을 다시 머릿속에 눌러 읽어주는거임

* 폴라니 문장은 독한것p.12에서 가져옴

예시가 생각안나서...ㅎ.ㅎ

3. 정보량 폭탄일때는 손을 써서 정보정리해도 괜찮다

보통 정보량 폭탄일때 뇌절오기가 쉬운데

이때는 의식적으로 손을 끄적이면서 푹푹 눌러읽는게 도움될수도 있음

완벽하게 글을 못읽어도 괜찮음

어짜피 우당탕 풀고 다맞으면 아무도 모름ㅋㅋ

손을 통해서

안정감도 주고

붕 뜨던 정보를 한번더 뇌에 박아넣는 느낌

이게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손을 써서 정보 처리하는게 어느 정도인지 다 달라서 이렇게 해라! 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보처리가 잘 된다 싶은 수준을 찾아내보셈

여백에 간단하게 비례,반비례 관계 메모해도 괜찮고

밑줄로 간단하게 표시해도 괜찮고

화살표로 기호처리해도 괜찮고

* 손을 써서 읽으라는게

메모한걸 전부 외우라는거 아님

정보량 폭탄인 경우는

오히려 그렇구나~ 이런애가 있네~ 이정도 봐주고

큰 흐름타면서 읽는게 쉬운 경우도 있음

물론 중요정보가 뒷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당일 지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너무 다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잘 읽을 수 있을거임

칼로릭 지문을 예로 들자면 (기억잘안나서 ㅈㅈ)
왜 칼로릭 이론이 모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모순이어서 다른 이론에 밀렸다>

이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고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에는 문제없었음
문제를 풀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발휘하면 되는거임

4. 자신감

제일 중요한건데
자신감을 가지셈
시험장에서 니가 못푸는 문제는 없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다 어렵다
글이 텅기는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ㅈㄴ 어렵게 내서 그런거임ㅋㅋ
평가원 개너무하네ㅋㅋ 어케 이렇게 문제를 내노ㅋㅋ

이런 태도로
나 자신을 믿고
이때까지 해왔던 시간을 믿고

정 이해가 안되면 안되는대로
강 사실 그 자체로 정보를 머릿속에 토막쳐서 넣는 느낌으로 읽어보셈

어짜피 모르겠을때는
문제풀다가 지문 다시 돌아오면 됨

문제풀때
지문으로 돌아가는걸 너무 두려워하지마셈

능력치는 평소에 기르는거고
실전에서는 내가 올려놓은 능력을 믿고 풀면됨

5. 뭉개지 말기

문장 뭉개지 말고
지문에서 설명해주는 두 대상을 뭉개서
하나로 통치지 말고

이전글로 올렸던거긴한데
본인이 작수 모델링 지문에서
문제 풀때 모델링 렌더링 제대로 구분안하고
하나로 통쳐서 선지 판단하다가 틀릴뻔함

이거는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수라
그냥 처음부터 정신 똑띠 차려서
특히 단어 비슷할때 $A-b$ 헛갈리는거 염두에 두셈

$A-a$
 $B-b$

이렇게 나왔을때 선지에서 $A-b$ 이런식으로 연결해봤으면 금방 보이는데
 $A-a$
 $A'-b$

이런식으로 단어 비슷하게 보이면
선지에서 $A'-a$ 로 연결해봤을때 발견하기 어려움

문장 뭉개는건
그냥 아무생각없이 굳은 상태에서 읽다가 뒤늦게 정신차리고
어? 뭐랬지? 이 단어는 갑자기 왜 튀어나와? 앞에 있었나? 이러지 말라는거
내가 말하고 싶은건
이정도

그냥 내가 어떤태도로 푸는지 적은거긴한데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르셈

#문학 시간단축하려면

작품읽는시간 / 선지판단 시간
시간을 재서
이 둘중에서 뭘 줄여야할지 판단해보셈

작품읽는 시간 너무 오래걸리면
디테일하게 다 들고가려다 오래걸리는거라

큰 흐름파악하고 선지판단에서 지문으로 돌아가는 연습 좀 해주고

선지판단에서 오래걸리면
이거는 망설이는 시간을 줄여야함

머뭇거리면서 고민하다가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셈

답풀라내는 속도 높이는건 문학공부하는 이유고
그건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아가야함

이거 두개를 잘 하면
독서에 50분 박을수있음

국어풀때 많이들 놓치는거

애매하면
제발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 좀 하셈

이거 확인하는데 10초도 안걸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손걸하지 말고 제발
이거는 손걸이 아니라 모가지걸기임

시간 단축하는 법 & 나를 믿기

1. 시간 투자와 낭비를 구분하자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는것은
어렵고 힘든 작품/문제에 시간을 들이는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ㅋㅋ 어려운데 어떻게 순식간에 풀어내요..
시간이 더 걸리는건 당연하죠:)

작품이 잘 안읽혀서 오래걸리면 다른데서 시간을 줄여야지,
모르겠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는건
이해를 더 떨어뜨려 시간을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시간운용은 유연하게 하세요
강박적으로 이걸 4분컷! 이걸 1분컷! 이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풀어가세요

-지문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에 잘 안돼요
솔직히 천재아니면 지문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ㅋㅋ

많은분들이 지문으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따라 달라요

지문으로 안돌아가고 큰 흐름으로 선지가 지워진다면
굳이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지문으로 돌아가는게 시간낭비니까요.

그러나, 기억이 안난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야죠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10초 컷인데
1-2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뭐가 바뀌던가요?
이 경우는 돌아가서 확인하는게 시간투자이고, 시간단축입니다.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지문 와리가리 읽는건 시간낭비인거 아시죠?
필요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필요한만큼 읽으세요:D
이걸 도와주는게 간결하고 정확한 지문표시 입니다.)

-선지가 헛갈려 답이 안나오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투자하여 지문으로 돌아가고, 선지를 더 꼼꼼하게 비교해야합니다.

*여기서 손가락걸기 하다가 잘리시는 경우 많을텐데
손가락 걸기는 뇌걸기가 아니에요

뇌피셜로 찍지 마시고
진짜 모르겠으면 별표치고 넘어가세요
저는 본다고 답 안나오더라구요... ㅎㅎ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만히 멍때리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없이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푸는 과정에 있어 시간이 더 들지만
문제만 쳐다보면서 초조해하는 시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의식없이 무작정 지문과 문제를 반복해서 읽지 마세요

모든 행동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문으로 왜 돌아가나요?
문제를 왜 다시 읽나요?

이 질문을 던졌을때
절름이 있다면 시간낭비입니다.

-과감하게 넘어가는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을 골랐는데 나머지 선지랑 아리까리할때,
답이 안나올때 별표치고 넘어가는걸 두려워하지마세요
망설이다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민해도 처음에 선택한 답이랑 차이없는 경우 많잖아요 ㅎㅎ.....
차라리 빠르게 한바퀴 돌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보는게 좋아요 수학처럼요!

시간 단축의 심화는
낭비하는 시간을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시간을 견어내세요

실모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싶은 지점을 발견해보세요

기계적으로
머리와 손을 멈추지말고
물흐르듯이
계속 풀어나가는거예요

기억이 안난다 -> 당연하게 지문으로 돌아가기
-> 선지가 두개중에서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 조건 더 끊어서 판단하기
-> 진짜 모르겠다 -> 별표치고 넘어가기

이게 반복되다보면
굳어지기 없는 문풀이 조금씩 시작될거예요

2. 시험장에서는 자신을 믿자

공부할때는 나를 의심하고
시험칠때는 나를 믿으세요

이게 거꾸로 되서 망해요
인강들으면서 공부할때는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시험칠때 내가 고른 답에 확신이 없어요

평소에
칼같은 태도로 공부하세요
모든 선지에 근거를 찾고
내가 작품을 제대로 읽었는가
몽건부분은 없는가 제대로 피드백하세요

이렇게 감을 날카롭게 버려내서
시험장에서는
휘두르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나를 믿는게 아니라
평소의 나를 믿는게 되겠네요
시험칠때는
답 고를때도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해설지 쓰는거 아니잖아요ㅎㅎ
모든 선지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선지가 애매해도 정답만 골라내면 맞은거잖아요

공부를 통해 날카롭게 버려낸 감이 말하는걸 믿으세요

어.. 대신에
이게 뇌결기는 아닌거 아시죠?

이거 답인것같아!!
왜?
몰라ㅎㅎ 그냥 내 감이야ㅎㅎ

이게 아니라

다른건 다 개소리고 이걸 확실히 맞말인데 나머지 하나는 좀 헛갈려
일단 맞말인거 확실하니까 애가 답이야
헛갈리는건 별표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확인하자ㅎㅎ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믿고 풀었는데
손가락 다 썰리고 점수 난리났다면

-> 피지컬이 부족한것이니 계속 꾸준하게 쌓아주셔야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피지컬이 완성되어있지 않으면
진짜 아무 소용없어요...!!
피지컬 완성이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정보량 폭탄에 대처하는법.txt

오늘은 정보량 폭탄일때

제가 푸는 방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7월 학평도 수월하게 풀었던것 같아요

(지문예시는 갖고오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려요

저도 수험생이라 시간이 많이 없네요,,ㅎㅎ)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수도 있어서 이럴수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량 폭탄인경우

머릿속에 다 담고가려다 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담고 가려다

뇌절하게되면 그 뒷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머리에서 튕겨요.

지문의 흐름을 놓쳤기때문에

다시 앞부분 뒷부분 와리가리하다

문제를 풀때도 왠지...뭘말이야?

이런 상태로 빠져들며

다시 무한반복으로 지문을 읽게됩니다.

(대부분

지엽을 다 담고가려하거나

지문에서 설명해주지 않아서 알수 없는 부분까지 전부 이해하려하다

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사고는 마비되었기 때문에
지문에서 나온것 같은 말이 보이면 답으로 체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 많으셨을거예요,,:0;

**사실 정보량이 쏟아져 나올때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도 마찬가지로요.
지문에서 왜 그런지 안알려주는데
혼자서 이해하려고 끙끙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려주는 경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하구요)

지엽은 나중에
문제풀때 돌아와도 괜찮아요
중요한건 지문의 흐름입니다.
지문이 말하려고 하는 큰 줄기를 파악하면
나머지 정보는 걸다리에요

과하다시피 지문을 이해하려고하고, 다 담고가려는 태도는
지양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말한다고
모든 내용을 지엽이야 버려! 하시면 안돼요,,,
작동원리가 나오는 지문에서
이해자체가 안돼서 뒷 내용으로 넘어갈 수 없는데
야 지엽이야 버려!! 이러시는것도 안돼요:ㅁ:)

어짜피 지엽은 문제풀면서
지문으로 돌아가 체크해줘야하는데
모든걸 안고갈 필요는 없잖아요

흐름을 파악하며
내가 담고갈 수 있을 정도로만 담고가도 괜찮아요

(알아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세부내용을 버릴필요 없어요~!!
모든게 기억나는건 최상이죠ㅋㅋ)

* 정보량 폭탄에 휩싸여
굵직한 흐름 파악하기 버거운 경우에
모든 정보를 안고가는건 하이리스크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과하게 다 챙기려하기보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읽어가며
나중에 문제에서 지엽을 물을때는 지문으로 돌아와서 확인해주면 됩니다:)